



사육농민 주도의 육계산업 출발

■ 현장취재/함경숙 기자

우리나라에서 육계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고유영역을 갖추지 30여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0월13일 전국의 육계인들이 잠실 교통회관 대회의장에 모여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전국육계인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본회가 후원, (주)미원 단독 협찬으로 3백50여명의 육계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강석부 추진위원의 사회로 개회 선언에 이어 김중설 추진위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 육계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각종 단체나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다보니 실질적

인 단합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육계인들의 태도를 지적한 후 이번 대회의 개최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지난번 육계분과 전문위원들이 천안에서 가진 모임에서 육계인들만이 모여 배우고, 단결된 힘으로 스스로 산업의 안정화를 이루어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육계인대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 대회개최에 대한 의견이 9월19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9월 육계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대회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특히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장민기(버들농원, 본회 육계담당 부회장)씨를 대회장으로 위임하

고 강석부(육계농가안정협의회 부회장), 권태웅, 조정래, 이종길, 김풍림, 최종필, 김중설, 김광운, 김종철, 김복천씨 등 전국의 각 지역별로 11명의 추진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민기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육계인들은 국내 시장의 영세성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육계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폭락하는 불황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참고 견뎌왔다”고 현재 처한 육계업의 실태를 토로하였다.

더우기 규모의 영세성과 시설미비로 인해 생산성과 상품성이 낮은 데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육계상인의 담합 등 각종 농간으로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제 값도 못받는 실정이며 생산자의 무지와 정보가 어두워 과잉생산에 따른 불황을 수없이 겪어왔다고 밝히고 육계인단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강희구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은 격려사에서 “양계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채란업자들은 계란가격이 하락될 때 모임이나 기타 조직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비해 육계인 여러분은 올해의 육계가격이 대체로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전국육계인대회의 뜻깊은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특히 육계업은 채란업과는 구조가 달라 두달 정도만 지나면 생산물을 출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화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계획적인 생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홍보사업으로 소비량을 좀 더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육계산업도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모색해서 가격안정과 양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원리를 명심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각자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국육계인 일동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우리의 생존



권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6개항의 결의문이 최종필(본회 용인분회장)추진위원의 주창하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내용이다.

1. 육계업은 우리의 천직이며 우리가 주인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의 생업사수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육계인이 된다.

2. 우리 육계인은 동업자 의식을 굳게 갖고 서로서로 협조하면서 육계산물의 제값받기와 건전한 유통을 위해 앞장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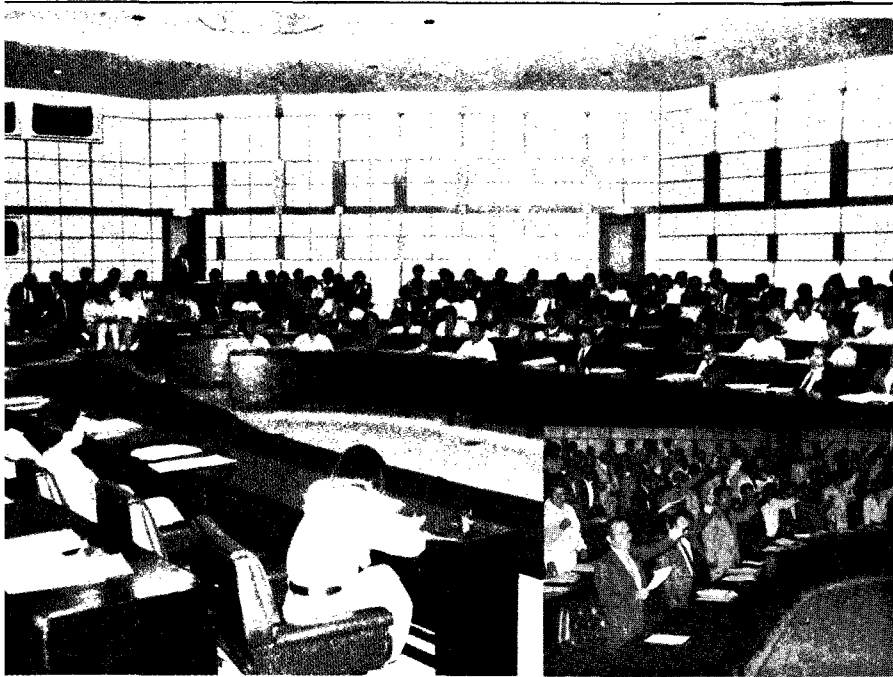
3. 우리 육계인은 자율생산조절과 생산성 향상 및 생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우리 육계인은 우리가 생산한 산물의 소비확대로 육계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홍보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5. 우리 육계인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6. 우리 육계인은 육계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면서 우리의 산물이 국제경쟁력이 있을 때까지 육계산물의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이번 전국육계인대회는 50년대 잉여농산물 원조로부터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30년만에 최초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육계인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보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육계인은 모이기에 힘써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협회·조합 등 생산자 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율생산조절 △소비촉진 홍보 △닭고기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모두가 힘을합쳐 정진기로 했다.

참가한 350여명의 육계인들은 개회시부터 시종일관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중간에 자리를 뜨지 않고 거의 전원이 폐회를 지켜보면서 육계산업의 발전을 열망했으며 단합을 통해서 육계인에 의해서만이 육계업의 안정적발전이 가능하고 육계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 제2의 육계산업 도약을 엄숙히 선언했다.

이날 단합의 의지는 자발적인 닭고기 소비홍보비 모금에서도 나타났는데 참석자 350명중 134명이 홍보비 8백25만7천원을 모은 바 있다.

4~5천억원규모로 연간 2억7천여수를 공급하는 육계산업은 본대회를 통하여 2천여 육계전업농가의 단합의 의지가 결집돼 누구의 도움 보다는 스스로 노력에 의해 국내 축산업중 가장 모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2세대 육계산업의 힘찬 막이 오르고 있다. 지난 30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육계인들 모두가 힘을 합쳐 그 막을 힘차게 걷어 올리고 있다. **양계**



“ 육계인들은 대회장에서 우리의 결의를 통해 육계산업은 성장산업임을 다짐하고 천직으로서의 육계산업에 주인의식을 갖고 남을 비평하거나 책임전가에 앞서 스스로 노력하는 육계인이 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

모여 민주화시대에 육계산업에 대한 일은 육계생산농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육계인들은 대회장에서 우리의 결의를 통해 육계산업은 성장산업임을 다짐하고 천직으로서의 육계산업에 주인의식을 갖고 남을 비평하거나 책임전가에 앞서 스스로 노력하는 육계인이 되겠다는데 한 마음 한뜻이 되었다.

또한 낙후된 생산시설 개선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향상과 상품성제고를 통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며, 농장 뿐만 아니라 농장밖의 유통·소비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당국의 정책빈곤을 육계인의 의견을 집약해 정책대안을 제시, 관철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는데 의견의 일치를